

보도자료

2010년 5월 28일(금)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방송통신녹색기술팀 김광수 팀장(☎750-2190)
 방송통신녹색기술팀 우혜진 사무관(☎750-2195) hjwoo@kcc.go.kr

정부·방송통신업계,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확산을 본격화!!!

- 제2차 「녹색 방송통신 추진협의회」 개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방송·통신·케이블·인터넷업계 CEO 및 정부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5. 28(금)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녹색 방송통신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방송통신분야의 녹색성장을 위한 민·관협력체계인 「녹색 방송통신 추진협의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KBS·MBC·SBS·KT·SK텔레콤·통합LG텔레콤·티브로드·씨앤엠·네이버 등 주요 방송통신사 사장들이 모여,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방송통신업계의 관심과 성과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1. 방송통신분야 녹색화 적극 추진

가. 에너지 감축 분담량을 30% 초과하는 선도적 감축 목표에 합의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방통위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금년도 방송통신분야가 분담하기로한 감축량을 30% 초과하는 선도적 에너지 절약 목표(15,710 TOE)를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뿐만 아니라, 2011년과 2012년의 목표는 올해의 과감한 절약 목표에서 5%, 10% 상향하는 목표로 설정하여,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의지를 천명하였다.

나. 『2010 녹색 방통통신 추진 방향』 제시

한편, 방통위가 발표한“2010 녹색 방송통신 추진방향”의 방송통신분야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계획에 따르면, 통신사는 2011년까지, 지상파 및 케이블사는 2013년까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온실가스 목표관리가 이루어질 것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IT자원 절감에 기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및 기상청의 그린 IT체계 구축과 연계한 사물지능통신 확산 사업, 현재의 네트워크 효율을 1,000배 개선하는 그린 ICT 기술 개발 등 방통위의 녹색 방송통신 정책들이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2. 민관합동으로 “경제사회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생활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본격화!!

이어진 방통위의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추진전략』 보고에서는 방송통신 서비스와 타 산업간 융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대폭 절감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교육, 공공행정, 의료, 교통, 농수산·소상공, 금융 등 주요 6대 분야에서 민관 공동으로 융합서비스를 확산하는 한편, 정부는 법·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번 추진전략은 금년에 2차례 개최된 『녹색융합서비스 민관합동 추진협의회』 운영결과와, 지난 2월 59개 기관으로부터 접수받은 수요조사 결과(62개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수립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민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주요 분야별 융합서비스 밑그림 제시

우선 교육 분야에서는 '15년까지 사업자간(통신·DCATV 사업자) 경쟁을 통해 현재 학교망을 최대 10배(약 500Mbps) 빠른 수준으로 증속하고, 영어 및 미술·음악(특기적성) 교육 등을 위한 “방과후 학교”를 중심으로 IPTV·디지털 케이블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교육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직 부족한 멀티미디어 교육콘텐츠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교육콘텐츠 오픈마켓을 구축하여, 교사·학생들이 자유롭게 교육 자료를 생산·유통·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영상전화를 통한 민원상담 시범서비스가 추진되고, 전국 등산로 정보, 생활법률 정보 등 생활밀착형 공공정보들이 IPTV·케이블TV·스마트폰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제공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들이 각각 구축하는 공공정보들이 구축단계부터 표준화되어 통합제공 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각 기관별로 개별 구축되어온 수도권·광역시 및 전국 고속도로의 교통정보들이 네비게이션·TV·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되며,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법의 개정에 맞추어

희망하는 기관의 환자(교도소 재소자, 군인 등)를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 서비스가 제공된다.

* 서울시설관리공단과 한국도로공사간 MOU 체결('10. 5.25, 방통위 후원)

그 밖에 가정에서는 IPTV 등을 이용하여 각종 조회·이체, 공과금 납부가 가능한 Home-ATM 금융서비스가 실시되고, 다양한 농수산물 이력정보를 TV·모바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어민들에게 영상으로 재배·양식·가공·유통 등에 관한 기술전수 및 상담도 이루어 진다.

정부는 이러한 분야별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공모를 통해 과급 효과가 큰 과제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민관합동 추진협의회를 통해 정부·기업·수요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나. 융합서비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

방통위는 분야별 융합서비스 추진과 아울러, 다양한 법제도적 뒷받침으로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융합서비스 성과측정 지표(Index)를 개발·보급하여 기업의 융합서비스 도입의사 결정을 돕는 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융합서비스의 출현과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사항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유료방송매체에 대한 규제완화도 세미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상통화·영상회의·모바일오피스 등의 핵심 방송통신 서비스의 도입·확산을 위해서 유무선 서비스간·사업자간 연동 등을 적극 추진한다.

향후, 융합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해 민간에서는 금년도 1조 6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시작으로 '12년까지 약 5조원 규모 이상(추산)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붙임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추진전략 주요내용』

한편 업계에서는 에너지절약 주요 이행 방안으로서 그린 IDC 구축, 국사 광역화, 2G망의 조기 철거, 가상스튜디오의 활용, 파일 기반의 제작 시스템 도입,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KT는 그간의 자체적인 그린 인프라 노력의 결과 2009년 최초로 통신시설 전기에너지 사용량이 전년대비 5.1%감소했고, '2013년까지 연간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 감축'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KBS는 연내에 본관 옥상에 50KW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며, 방송용 LED 조명기구를 국산화 하는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MBC와 SBS 또한 환경다큐 '남극의 눈물(MBC)', '사하라의 눈물(MBC)', '툰드라'(SBS)을 기획 중에 있으며,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위해 2010년~12년에 걸쳐 SK그룹 차원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예정이며, 녹색융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 차원의 에너지 효율적인 유틸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UUC (Urban Utility Center)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케이블업계에서는 멀티채널 변조기 도입 등 기기·장비를 저전력화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고, 주기적인 출장을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전자청구서를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지원책, 녹색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녹색성장 홍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송의 역할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끝으로 방통위는 오늘 협의회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도 정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방송통신분야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며 타 분야의 모범이 되기 위해 방송통신업계 경영진들의 지속적인 리더십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

<참고1>

발표 1 : 2010 녹색 방송통신 추진방향

□ **지난 1년간의 녹색방송통신 추진성과**

추진 성과	주요 내용
1. 방송통신 녹색성장 추진기반 마련	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 시행('10.4.14) ② "녹색 방송통신 추진 종합계획" 마련('09.4.8) ③ "녹색 방송통신 추진협의회 " 운영 등 ('09.3월~)
2. 녹색 방송통신 확산	① 「기후변화와 ICT 국제 심포지움」 개최('09.9) ② 「녹색성장 체험관」 개관('09.8) ③ 폐휴대폰 수거·재활용 ('09년 340만대) ④ 홍보책자 발간·기획기사 연재 등
3. 녹색 기술개발 및 표준화	① 저전력 방송통신 인프라 핵심기술 개발 추진 ② 그린ICT 관련 국제표준화 주도
4. 방송통신 기업의 녹색화 유도	① 방송통신 네트워크의 저전력화 (2G망 지속적 철거, 그린IDC 구축 등) ② 방송통신 기업의 녹색경영 활동

□ **방송통신이 선도하는 에너지 절감**

○ (추진목표) '10년 방송통신분야의 에너지 절약 분담 규모보다 30% 초과 달성하여 타 산업 분야를 선도

- '10년 에너지절약 목표를 15,710 TOE로 설정하여, 방송통신분야 분담규모(12,000 TOE) 대비 30%를 초과하는 도전적 목표 제시

※ 15,710 TOE(석유환산톤) = 약 KBS 1년 전력사용량

○ (추진방안) ①클라우드컴퓨팅 확산 ②사물지능통신 확산환경 조성
 ③무선광대역망 이용 활성화 ④환경친화적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등

□ 녹색기술·녹색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

- (녹색인증 대상) ①녹색기술 인증(단거리 무선통신 저전력기술 등)
② 녹색사업 인증(그린방송통신 인프라·서비스 보급 등) ③녹색 전문기업 확인
- (추진체계) ①평가기관(한국전파진흥원, 평가의뢰 접수 및 인증평가·추천)
②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접수·녹색인증발급 및 평가의뢰)
- (주요혜택) ①녹색펀드 등 자금 지원 ②기술평가보증 우대 ③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녹색 방송통신 인프라 확충

○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 ① 클라우드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 플랫폼 통합 그린IPTV 서비스 시범사업
- ②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시장 창출지원(40억 규모)
- ③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10.3월)

○ (그린IT 연계 사물지능통신 확산)

- ① 시범 서비스 확산(기상청, 강릉시, 서울시 등)
- ② 사물지능통신 활성화 지원법(안) 제정 추진

□ 미래 그린ICT 기술·서비스 개발

- (추진목표) ①현재의 N/W 효율을 1,000배 개선 ②에너지 수요관리 및 통합 환경 모니터링 구축
- (핵심원천 기술개발) 전력, 가스 등의 소비량 측정을 위한 기술, 장비 개발 및 서비스간 상호연동을 위한 표준화 등

발표 2 : 방송통신 녹색융합서비스 추진전략

□ 개 요

-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VIP 보고('09. 12월) 이후, 그간의 『1·2차 녹색융합서비스 민관합동 추진협의회』 운영 및 수요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세부 추진전략(안)을 마련

— <주요 추진 경과> —

- '09. 12월 : VIP 업무보고시 「융합서비스 활성화」 추진방침을 보고
- '10. 1월 : 제1차 녹색융합서비스 민관합동추진협의회를 개최
 - * 30인 내외의 민·관전문가가 참여, 각 사업자별로 융합서비스 추진전략 발표
- '10. 2월 : 분야별 융합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실시
 - * 200여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59개 기관으로부터 62개 과제를 접수
- '10. 3~4월 : 민관합동추진협의회 분과회의 개최(4개 분과)
 - * 분야별 주요과제 추진방향, 사업자·수요기관간 협업·연계 지원 등
- '10. 4월 : 제2차 녹색융합서비스 민관합동추진협의회 개최
 - * 각 사업자별 융합서비스 추진현황, 정부의 융합서비스 추진전략(안) 수립방침 발표

□ 융합서비스의 개념 및 필요성

- (정의) 방송·통신 각 요소들이 상호 결합되어 방송·통신 서비스 자체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이를 타 서비스 분야에 적용하여 보다 큰 시장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정의
- (필요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는 ①세계최고의 ICT 인프라에 대응한 신수요를 창출하고, ② 국내 서비스산업의 수준을 높이며, ③방송·통신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④ 서비스산업과 접목된 新비즈니스를 창출

방송·통신 서비스와 타 산업간 융합을 통해 원격업무처리 등이 가능해 짐에 따라, 교통비 등 사회비용 절감으로 녹색성장에 기여
 예> ICT를 통한 만성질환 생활패턴 관리를 통해 '09년부터 5년간 21조 절감예상(보건사회진흥원)

□ 주요 추진과제

추진 분야		주요 추진 내용
분야별 융합 서비스 활성화	교육	○ 학교망을 현재보다 최대10배(약 500Mbps) 빠른 수준으로 증속('15년까지) 하고, 방과후 학교 중심의 멀티미디어 교육서비스를 지원 ○ 교사·학생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 직거래장터 구축을 추진(EBS 등)
	공공행정	○ 방문·상담 처리가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해 화상상담 시범서비스 실시 ○ 등산로, 생활법률 등 생활 공공정보들을 IPTV·스마트폰 등으로 제공 ○ 케이블방송의 원활한 공공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을 지원
	교통	○ IPTV·DCATV·스마트폰 등을 통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를 추진 하고 서비스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단위로 확산
	의료	○ 의료법 개정에 맞추어 교도소 등에 원격의료 시범서비스 추진 등
	농수산·소상공	○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정보 등을 IPTV·DCATV·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
	금융	○ TV를 이용한 Home-ATM 서비스 확산 추진(각종 조화·이체, 공과금 납부 등) ○ 원격으로 화상상담 등이 가능한 무인 금융지점 도입 추진
법제도 기반 구축	융합서비스 지수(Index) 개발·보급	○ 기업들이 참고할만한 융합서비스 성과측정 지표를 개발하여 기업의 융합서비스 도입의사결정을 돕는 틀로 활용 * 동 지수를 통해 국내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해외진출시 레퍼런스로도 활용
	공통서비스 기반 구축	○ 영상통화·영상회의·모바일 오피스 등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송·통신 서비스의 도입·확산을 지원 - 서비스간 상호연동, 중소기업 지원 등을 추진
	법·규제 체계 정비	○ 융합서비스의 출현과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사항을 발굴·개선 하고, 초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지원근거 마련

□ 향후 계획

- 정부는 금년 중 시범사업(10. 6월~10월), 융합서비스 지수개발('10. 12월) 및 제도개선(상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11년부터 정부의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를 추진
- 민간에서는 금년 1조 6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시작으로 '12년까지 약 5조원 규모 이상(추산)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발표 3 : 각 사별 녹색 방송통신 추진 현황

1. KT, KT Smart Green 추진현황

□ KT 녹색비전 및 추진목표

- (비전) 그린IT Project를 10대 경영전략에 포함, Smart Green Company 구현
- (목표) '13년까지 연간 탄소배출량 '05년 대비 20% 감축

□ KT '09년 녹색통신 추진현황

- 2009년 최초로 통신시설 전기에너지 사용량 전년대비 감소 (▽5.1%)
 - 국사 광역화, 2G 조기 철거, IDC 그린화 등 시행, PC 전원관리 솔루션 자체 개발, 통신업계 최초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 그린서비스 도입 및 국가 녹색성장 정책 참여
 - Qook서비스 무출동 개통, 화상회의 시스템 출시, KT 우수협력사 환경 국제인증 취득 지원, 경기-KT 녹색성장 투자조합 출자(150억) 등

□ KT '10년 녹색통신 추진방향

- KT 자체의 에너지 효율화 지속적 추진 및 국가 차원 탄소 저감 노력 참여
 - ①그린캠페인 전개 ②그린IT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③통신인프라 에너지 효율 지속적 제고 ④KT사옥 그린빌딩화 ⑤녹색컨버전스 모델 발굴 등
- 타 산업과의 컨버전스 통한 스마트그린 서비스의 성장 동력화
 - ① 스마트그리드 사업 ② 원격/재택근무 지원 기술 개발 ③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발굴 ④ 빌딩 자동화 및 에너지관리 솔루션 개발시스템 등

2. 방송협회, 녹색방송 추진계획(안)

□ 방송분야 에너지 절감 방안

- KBS 본관 및 KBS전주충국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예정
- 저전력·고효율 LED 도입을 확대하고 LED 국산화 개발에 참여
- 멀티모니터 시스템, HD카메라·VCR 등 저전력 디지털 제작시스템을 지향
- 디지털TV/DMB시설 신설시 저전력 시스템을 도입

□ 친환경 방송 제작 환경 및 서비스 활성화

- 가상 스튜디오 확대를 통해 세트 제작시 소요되는 자원을 절감
- 파일 기반 제작시스템을 확대하여 Tape 사용량 감소
- T-DMB TPEG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탄소배출량 감축

□ 녹색성장 홍보 방안

- 녹색기술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 특집 프로그램 제작
- 에너지 절약 및 그린 캠페인 지속 등

3. SKT, SK텔레콤의 성장은 친환경 경영으로

□ SKT 친환경 경영 추진 방향

- (전사적 친환경 문화 구축) SK그룹 환경R&D위원회, SKT 그린 ICT 위원회 구축 등 친환경 경영 실행 체계를 마련
-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 SK그룹 관계사간 탄소배출권 거래제 참여, 저전력 중계기 도입,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국사 냉방기 효율화 등

- (사내 에너지 절감 활동) 사옥 전력량 관리 시스템, 사내 화상 교육 시스템 및 원격회의 확대
- (친환경 서비스 강화) 모바일오피스, 원격진료,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 등 ICT융합을 촉진하는 SKT IPE(Industry Productivity Enhancement) 사업 강화

□ SKT 중장기 친환경 발전 방향

- 친환경 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하고 ICT융합 사업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에 기여
- 친환경캠페인·전자청구서 등 대고객 친환경 활동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

4. 케이블협회, 케이블TV 녹색방송 추진

□ '09년 녹색방송 추진현황

- 냉방기 동작 개선, 스튜디오/DMC 송출센터 LED조명 도입, 화상 회의 시스템 도입 등

□ '10년 녹색방송 추진계획

- 디지털방송서비스 장비를 교체하고 디지털미디어센터(DMC)를 통합하여 전력 소비량을 감소
- 이메일링 시스템을 확대하여 종이 사용을 축소
- 멀티채널변조기 도입에 따른 장비수 감소로 전력사용량을 절감
- 공공통합센터 구축을 통해 장비 운용을 절감하고, 표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비효율성을 방지
- 지역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환경메시지 전달 행사를 개최